



우리네



Vol. 31

정기간행물 등록 10호

www.uriseed.com

등록번호: 경19010107

등록일자: 2006년 8월 7일

발행일: 2006. 6. 1

간봉: 격월간

발행인: 박공명

편집인: 박공명

발행소: 경기도 안산시 오기동 송곡리 696

발행처: 우리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196-62

TEL: 02342-1289-2

FAX: 02342-1283

Vol. 31



벽화수란 숙근다년생식물, 초화류 등의 다양한 식물과 토양, 자동관수시스템을 일체형으로 업그레이드된 벽면, 옥상, 호안녹화를 식재패트의 사이입니다.

벽면, 옥상, 호안, 콘크리트 구조물 등 식물이 식재하기에 부적합한 인공구조물을 녹화하기 위해 이미 이전부터 선행되어진 기술들이 있다. 그 예로 벽면을 녹화하기 위해 벽면을 플라스틱 칸테이너를 만들어 벽면에 부착하는 기술과 와이어나 줄을 이용해 땅굴식 식물로 지피하는 기술, 꽃바, 가로수화분과 같이 구조물을 이용하여 녹화하는 기술 등이 있으며 벽면과 경사면을 폭재로 제작하여 땅굴식 식물을 피복시키는 기술, 인공도양을 천연섬유인 코아(cocor)로 포장하여 벽면에 부착하는 기술 등 이미 이전부터 녹화기술이 선행되어졌으며 지금도 실험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술들은 수년 동안 천재가 머리를 뺀 것 이상의 기술개발은 없었다.

왜 소비자들은 도심 속의 자연을 꿈꾸는가?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위해 전국민적으로 산업화, 공업화에 전방화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GNI)가 2만달러를 넘어선 현재 소비자들은 한계를 배우기 위한 욕심보다 건강에 좋은 웰빙 먹거리, 겨울에 따뜻한 여름에 시원한 집보다 공기도 좋고 빛도 밝은 집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업, 조경에 역시 소비자들은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을 뽐내는 열년생 초화류의 인위적인 조경보다 눈에 불보이지

는 않지만 지방에 산과 들에 피어있는 자연 속의 조경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렇듯이 국민적인 정서가 고급화 되어 차가운 콘크리트 빌딩 숲속에 자연을 꿈꾸는 것은 당연하다.

도심 속에 자연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않은 않다. 기존 선행기술을 볼 때 콘크리트 경사면에 와이어나 줄을 아이 탕굴식 식물로 녹화할 경우 오랜 피복기간이 소요되며 또한 탕굴식 식물의 특성상 일년 중 피복되어 있는 기간보다 와이어나 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벽면, 가로수 녹화를 콘테이너 및 꽃바와 같은 구조물을 이용한 경우 필요 이상의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천연섬유의 포장에서 만들어진 식재패트의 경우 천연섬유의 포장에서 토양의 이탈로 식물의 불균형적인 성장으로 주변경관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우리꽃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식재의 노하우를 기본으로 이미 선행되어지고 있는 인공구조물 녹화기술의 업그레이드 스폰지형 식재패트 벽화수(특허 제 10-0807283호)를 개발하였다.

인공구조물 녹화용으로 가장 이상적인 식재구조이다.

벽면, 사면, 가로수 등과 같은 인공구조물을 일반 토양만으로 식물의 식재가 불가능하다. 벽화수는 그러한 인공구조물을 녹화하기 위해 식물이 식재하기 가장 적합한 토양과



특수섬유를 혼합, 성형한 제품으로 기존 선행기술의 땅굴식, 세팅류에 국한되는 식물종의 한계성을 극복하였다. 또한 특수섬유로 형성되는 스폰지형 그물구조로 수직면과 곡면으로 설치되어도 형태의 유지가 가능하며 벽화수 내에 적절한 공극이 형성되고 유기물 및 양분을 포함할 수 있어 식물 생장에 적합하다.

비관수 시스템이다.

벽화수에 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실험을 두어 식재가 용이하며 현장상황에 따라 식물이 식재되어진 상태로 시공을 하여 녹화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또한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제사공의 변경비용이 없고 불균형으로 손쉽게 식재교체가 가능하다.

도심속에서는 관수나 양분공급 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벽화수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자동관수시스템과 양액공급기를 이용하여 비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친환경제품이다.

벽화수의 성치로 콘크리트, 철재 등으로 제작된 건축, 토목 구조물에 단열효과를 유도해 여름철과 겨울철 16% 정도의 냉, 난방비를 절감하고 도심속의 소음으로부터 20db 정도의 소음공해를 감소시키며 식물의 Co₂흡수와 O₂의 방출로 대기정화 뿐만 아니라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주변습도를 조절해 열섬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도심속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제품이다.

(2,3면에서 계속)

Contents

- 특집 : 벽화수 1,2,3면
- 스포트라이트 4면
- 대표적 조경식물군/옥상, 암석 기둥용 식물 5면
- 2008년 관심심종 6,7면
- 원형리포트 8면
- 현장리포트 9,10,11면
- 수종, 수면식물의 이해/그라스 스페이브 12면
- 무늬용 시지트/독자 Q&A 13면
- view 가이드 14면
- 종자포복제/가성형용 이용한 생활의 지혜 15면
- 포진! 북서열 16면

벽화수란

벽화수는 벽을 꽃과 식물로 덮어 도시를 숲으로 바꾸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벽화수는 섬유와 96%이상의 이상적인 육묘용 상태로 혼합한 경량의 식물생육기반제입니다. 이제 어떤 형태의 구조물도 어떤 재질의 구조물도 쉽게 타일처럼 붙여 녹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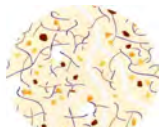
벽화수의 성형화 메카니즘

벽화수는 특수한 섬유를 잘 조성된 산토와 혼합하여 엽을 공급 성형하여 만들어 집니다. 때문에 적량의 섬유조직과 콘크리트, 폼라이트, 피트모스, 제올라이트 등이 주원료로 혼합되고 수용성비료와 항균물질, 습윤제와 미량요소까지 공급되어 pH5.5~7정도의 식물이 가장 살기 좋은 토양을 스폰지와 같은 구조로 결합되어 불려화된 안정된 토양메카니즘을 제공합니다.



벽화수 세부모식도

벽화수는 특수섬유와 천연섬유인 코파넷섬유와 피트모스, 콘크리트, 질석, 폼라이트, 액상 미량요소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소재를 혼합하여 열매의 해 소성된 투공의 스폰지형 식물메카니즘입니다.



벽화수의 특징점

1. 어떤 형태가 되었건 어떤 물성을 가졌건 자유로운 모양으로 성형 부착하므로 녹화가 매우 쉽습니다.
2. 충분한 기분영양과 지속적인 양분공급이 가능한 토양 시스템으로 피복기간을 단축시켰고 식물 성장이 양호합니다.
3. 섬유를 이용한 블록형으로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아 반영구적인 식생기반을 제공합니다.
4. 경량으로 작업이 매우 편리하고 공사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육상의 경우 하루 800㎡ 공사가능)
5.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꽃벽이나 기둥을 연출할 시 기존의 방법보다 50%이상 비용절감효과가 있습니다.
6. 한 번의 시공으로 매년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며 효과적입니다.
7. 식물을 심는 게 아니라 꽃이란 주변 되어 식재경비가 확 줄어듭니다.
8. 식물산맥의 폭이 매우 넓어 겨울에도 상록의 벽을 연출가능합니다.



벽화수용 트레이 육묘



식물을 붙인다



식물을 붙인다



식재 끝

9. 재사용이 가능한뿐만 아니라 재사용하여도 원재료의 물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또한 영구폐기의 경우 목재를 대체하는 좋은 연료가 됩니다.
10. 조립식 녹화공법으로 쉽게 다양한 식물군으로의 교체 가능해 매우 효과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1. 관수나 양분공급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특별한 생육 관리가 필요없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12. 베란다에서 채소를 바로 기를 수 있고 지역축제를 위해 콘크리트 등에 기타 화분, 화단없이 간단한 설치만으로 관리가 필요없는 녹화와 경관연출이 가능합니다.
13.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냉, 난방비를 줄이며 소음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는 물론 도시를 아름답게 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벽화수 벽면녹화 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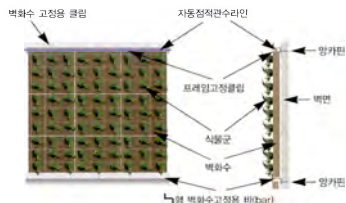
도로분리대, 방음벽, 다리교각, 난간, 학교담장, 건물의 벽체는 물론 동문 전봇대까지 한번에 녹화 가능합니다.



벽화수 설치



식물식재



스폰지형 식생기반제인 벽화수를 타일과 같이 벽면 부착으로 벽을 녹화시키는 간단한 시공방법입니다. 또한 자동타이머가 결합된 관수시스템의 적용으로 물관리는 물론 비료관리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 전체공정이 조립에 의한 모듈화 시스템으로 식물식재에서부터 물 공급에 이르기까지 매우 간단하고 청단화된 역신 기술입니다. 또한 전토노하우를 가진 전담팀이 식물선정에서부터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므로 최고의 전문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벽화수 시공공정

1. 작업현장에 빈집인 벽화수를 우선 프레임으로 간단하게 조립한다. 이때 클립으로 끼워준 주면 되므로 누구나 손쉽게 조립가능하다.
2. 설치장소에 양카핀을 박고 프레임 길이 ㄴ형강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조립된 벽화수의 프레임용 프레임길이 ㄴ형의 아래 홈에 끼우고 프레임의 뒷 부분에 U자형 조임클립을 걸어 프레임 길이 방향에 고정한다.
4. 관수라인을 설치하고 수원과 연결 물공급을 확인하고 서서히 물을 공급한다.
5. 벽화수용 트레이에 재배된 식물의 문양이나 계획에 따라 꽃기만 하면 완성된다.
6. 주변을 정리 정돈 후 사진을 찍어 자료를 남기고 작업 완료한다.

설치와 동시에 화려한 효과를 보기를 원한다면 공사 설치 전 미리 상단하여 벽화수의 프레임용 조립한 상태로 식물을 길러 반입가능하다. 이때는 벽화수 프레임용 프레임길이 방향에 고정하고 관수장치만 설치하면 바로 효과를 100% 볼 수 있다. 도로거나 모뎀하우스, 축제 장소등에도 이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벽화수 호안녹화공법

호안블럭, 도로경사면, 콘크리트블럭, 방조제 등의 콘크리트 사면 녹화의 새로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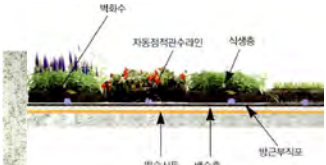


하여 특별한 물, 전조관리가 필요없는 최고의 화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생도 회복이 어려운 곳은 관수시스템을 적용하면 동시에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비관리 식물을 적용하면 특별한 관수장치가 없이 벽화수만의 설치로 안정된 식생복합이 가능합니다.



벽화수 옥상녹화공법

병원, 학교, 빌딩의 옥상이 벽화수의 간단한 설치만으로 아름다운 꽃동산, 꿈동산이 됩니다.



벽화수의 옥상녹화 공법은 특별한 인공토양의 추가반입 없이도 전대밭과 수근조림이 가능합니다. 특히 벽화수를 이용 제작된 구조물이나 인제 숲화분과 함께 조성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한 정원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관리의 녹화 개념만 적용한다면 관수장치 등은

필요없는 벽화수를 까는 것 만으로도 피복녹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화수로 만든 채소밭을 이용하면 매년 물주는 번거로움이 없이 3평만 있어도 가정에서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와 옥상, 광장의 꽃의 숲으로 만듭니다.

그외의 벽화수

1. 벽화수 숲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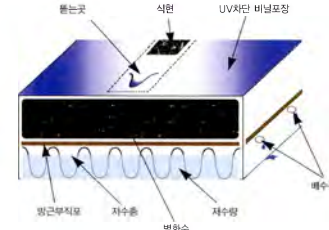
세워두는 것 만으로도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숲으로 꾸며 집니다.

벽화수 숲화분은 안정된 규격의 형제 혹은 플라스틱으로 틀을 만들어 벽화수로 틀을 피복하여 꽃기둥을 만든 형태로 기둥의 벽에는 꽃과 관목이 기둥의 상부끝에는 나무와 포인트식물이 적용되어 제작된 제품입니다.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세워두는 것 만으로도 꽃숲이 되고 꿈의 숲, 옥상의 숲으로 탄생합니다. 별도의 규격으로 주문제작도 가능합니다.



2. 벽화수 "FESTIVAL"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모양으로 설치한 하면 축제행사로서 성공.



벽화수 패스티지는 아주 간편한 간이 화분으로 지지체의 축제 혹은 기둥의 행사를 1회성의 행사나 일상의 도시미관을 위한 번거롭고 무거운 화분대신 간단한 비닐팩으로 구성된 화분을 놓고 꽃이란 주변 모든행사는 준비는 끝이 납니다. 도로의 콘크리트 바닥, 계단, 실내화단, 배란다, 창가 등 어디에 어떤 곳에든 놓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매품 "채소밭"은 가정의 필요 채소를 직접 길러 드실 수 있습니다.

3. 벽화수 "동굴이"

점시위에 유리고 물만 주변 사계절 함께하는 "동굴이", 나의 탁상위의 정원입니다. 아늑한 풍경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4. 벽화수 "액자"

심내의 그림액자처럼 벽에 걸어 카울수 있는 벽화수 액자.



연재 - 5 | 스포트라이트

아름다운 꿈을 꾸며 기다리는 여인의 꽃
꽃무릇 “아리아”



있는 축제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조금 가빠진 느낌이 드는 것은 열정의 순간 뒤에 맞이하는 허탈함아닐까? 때문에 꽃무릇 “아리아”는 음악의 아리아와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꽃무릇은 원래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라 전하는데 ‘우리꽃’에서 선발 육성한 ‘아리아’는 중국의 꽃무릇의 변이를 선발한 것으로 보면 된다. 사실 꽃무릇 (*Lycoris radiata*)의 속명인 *Lycoris* 속의 식물들 우리는 삼사초라고 표현한다. 한편으로 적역하면 삼사초와 같은 그래서 그리움을 지니고 있는 아리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잎과 꽃이 같은 시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아의 차이는 있지만 6~7월 잎이 마르고 휴면

주를 꽃무릇으로 부를 “아리아”로 처리하면 더욱 고급스런 연출이 가능

하면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이때 비닐이 잎에 직접 닿지 않게 발을 세워서 터널식으로 해준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식재방법은 하나의 종류로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주를 꽃무릇으로 하고 부를 이 “아리아”로 처리하면 단순한 색조의 개성은 물론 더욱 고급스런 연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속속의 바람은 불지 않는데 느낌을 아주 부드럽고 시원하고 서정적인 비닐이 부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힌다. 꼭, 눈을 삼포시 감고 아리아를 듣는 듯하다. 참 좋은 풍경의 꽃으로 우리는 석산을 아리아 하고 한다. 그 석산이란 꽃을 우리는 꽃무릇이라 하고 최근엔 가을이 되면 꽃무릇 축제를 벌이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꽃무릇 축제는 열

“아리아”는 중국 꽃무릇의 변이를 ‘우리꽃’에서 선발 육성

광의 봉강사 꽃무릇축제, 완평의 용원사 꽃무릇축제, 한양 상림숲의 꽃무릇축제를 비롯하여 남도의 전국은 꽃무릇으로 가을을 맞이한다. 꽃무릇은 가을 국화와 코스모스로 대표되는 우리의 가을꽃의 새로운 이름으로 때와 때를 막론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화려한 꽃무릇은 그래서 더 특별한

에 든 후 8월말에서 9월에 아주 화려한 꽃을 피우고 꽃이 지고 난 10~11월에 다시 잎이 나오거나 이른 봄에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Lycoris 속 식물은 세계적으로 10~12종의 식물이 있는데 최근에는 매우 빠르게 육성되고 품종으로 개발되어 수많은 품종이 있고 특히 유럽에서는 경화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우리의 “아리아”는 일반 꽃무릇과 어떻게 다를까?

가장 대표적인 특성적 차이는 흰색계통의 연한 화색으로 가을의 속살과 같고 여인네들의 속옷 속에 감추어진 땀산의 느낌이라고 해야 할 만큼 아름다움 백미가 느껴진다고 표현함이 좋을 것이다. 잎은 꽃무릇에 비해 길고 폭도 더 넓어 잎의 광상도 뛰어나고 알뿌리는 좀 더 길고 큰 장타원형의 구멍이다.

관리는 비옥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야 더더욱 잘 자라고 기본적인 기타의 관리법보다는 생육특성

대표적 조경식물군(Genus)으로 본 분류학적 의미와 품종의 이해

19



Armeria속

Armeria속은 약 80여종이 존재하는데 키가 작고 로제트 형태의 잎을 가진 겨울 상록성의 식물이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경용으로 다는 ‘너도부추’라는 이름을 가지고 분화용으로 재배되어져 왔다. 암석가든, 정원용으로 알맞은 소재 중 하나로 잎이 매우 조밀하고 꽃은 지하부에서 꽃대가 꼭 올라와 동글동글한 형태의 꽃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하며 화색은 분홍, 하양, 연분홍, 진분홍 등 다양하다. 초형이 작지만 매우 앙증맞고 귀여운 식물로 앞으로 조경용으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 품종군으로 반식은 종자를 이용하거나 삽목을 이용하면 된다.

비단너도부추

비단너도부추(*Armeria maritima* 'Splendens')는 꽃이 분홍색으로 피며 암석가든에 한포기씩 또는 정원의 곳곳에 무리지어서 식재하면 봄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다.



무늬너도부추

무늬너도부추(*Armeria maritima* 'Variegatum')는 꽃은 진분홍색이고 잎에 노란줄무늬가 있어 꽃이 지고 난뒤에도 관상 가치가 있다. 또한 다른 너도부추와 어울려 중간가든에 포인트식물로 적용해도 좋다.



큰너도부추

큰너도부추(*Armeria pseudamareria* 'Mardi Gras')는 비단너도부추에 비해서 키가 크고 잎도 폭이 넓고 긴 형태를 띤다. 하지만 전체적인 초형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암석가든의 돌주변에 식재하면 좋다.



적엽너도부추

잎이 적색을 띠는 특성이 있어 무늬너도부추와 마찬가지로 포인트식물로 이용해도 좋고 경계를 위한 라인식물로 이용해도 좋다. 또한 잎의 색상이 적색을 띠는 식물을 테마로 하여 조성할 때 암석식물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구름너도부추

구름너도부추(*Armeria maritima* 'Ministicks white')는 비단너도부추와 형태는 거의 유사하고 단지 순백의 하얀색 꽃을 피운다. 비단너도부추와 적절히 섞어서 심으면 분홍색과 하얀색꽃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



社告

제5회 우리조경인상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제정한 우리조경인상이 올해로 제 5회를 맞았습니다. 우리꽃에서 보급한 우양의 종자와 묘종을 현장에 잘 적용하여 아름답고 한 차원 높은 경관연출을 가능하게 한 분들을 대상으로 제5회 조경인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에게는 중국의 조경현장, 식물원, 백두산, 우리꽃 중국현지법인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추천접수 : 7월 10일
발 표 : 개별 통보후 7월 28일째

심 사 : 7월 20일
시 상 : 8월말~9월초



장기개화형 음지식물
달개비 시리즈

사탕배 레드크레이프
이이스 블루 키민

/// 특 장 ///

1.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반음지에 적용가능
2. 품종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
3. 늦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12-1281~2

건습에 강하고 지피력이 우수한

“백두산애기세덤”

옥상, 암석 가든용 식물 [연재 - 19]



옥상,암석가든에 대표적인 식물군은 세덤속 식물들이다. 품종이 많기 때문에 그 특성들이 다양하다. 잎의 모양과 질감, 꽃의 모양과 화색, 식물이 자라나는 형태 등 그 특성이 다른 많은 품종의 세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세덤들의 공통점이 있다. 건조에 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토심이 약하여 건조가 심한 옥상정원이나

배수가 잘 되고 암석과 잘 어울려야하는 암석가든은 식물로 매우 적합한 식물군이라고 할 수 있다.

백두산애기세덤(*Sedum middendorffianum* 'Baekdoo')는 백두산 근처에서 원종을 가지고와서 '우리꽃'에서 분리육종한 품종으로 세덤종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품종이다. 일반적으로 세덤류의 식물들이 건조에는 강하지만 습에 약하여 장마철 우기때 배수가 잘되지 않는 곳에서는 생육이 좋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백두산애기세덤은 습에도

백두산 근처, 원종을 가지고와 '우리꽃'에서 분리육종한 품종

강하여 옥상, 암석가든에도 품종에 알맞은 화단에 적용을 해도 좋은 식물이다. 꽃은 5~6월에 진한 노란 색으로 피고 잎은 매우 진한 녹색을 띠어 외형상으로도 질감이 매우 좋은 식물

이다. 또한 겨울철에도 반상록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형태적으로는 반포복성으로 자라고 매트

지피력이 우수하며 습에도 매우 강하고 겨울 반상록 유지

형으로 낮게 깔리며 자라기 때문에 지피력이 우수하며 습에 강하기 때문에 군식을 했을 경우에도 빈틈이 없이 잘 자란다. 관리상의 문제점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생육이 좋고 다만 줄이나 줄베짐이 좋지 않은 토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생육이 강건하여 그 쓰임새가 다양한 백두산애기세덤은 옥상, 암석가든뿐 아니라 화단에이나 분화용으로 좋은 소재이다.



2008년 관심집중 - ②

올해 새롭게 소개되어지거나 또는 기존 품종중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넘어가야 할 숙근초들을 매회 4품목씩 선정, 3회에 걸쳐 연재하고 한다. 조건을 식물을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주-

아름다운 장기개화형 소재

튤립 시리즈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변의 색들이 갈려 한 원색에서 온 한 파스텔 톤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예전에는 옷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품들이 원색을 띄었고 또 그것이 예쁘고 좋아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은은한 파스텔톤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도심에서는 팬지, 페튜니아, 메리골드와 같은 화려하고 강렬한 원색을 가지고 있는 초화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한 색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심고 있다. 이렇게 요즘에는 파스텔톤의 화색을 가진 식물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튤립 시리즈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조경지피식물 중의 하나가 되었다.

튤립 시리즈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조경지피식물 중의 하나

대 튤립에 따라 알의 모양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튤립이 데인팅 우리나리에 지장하는 큰 튤립을 연상하게 되는데 큰 튤립 외에도 많은 튤립의 종류가 있다. 큰 튤립의 경우 7~8월경 개화를 하는데 반하여 '우리꽃'에서 판매하는 '피스



텔' '비탄' '레몬'과 같은 품종은 5~10월까지 장기개화를 하며 화색 또한 은은한 파스텔톤과 고급스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다.

튤립 '피스텔'은 실제 파스텔의 색을 모두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화색이 혼합되어 있어 고급스러운 맛을 연출하며 단일색보다는 다양한 색감을 한 번에 감상하고자 할때나 단일품종으로 대면적을 식재할 때 좋은 결과를 연출한다. 또한 혼합식재시 빠지는는 단일 주요 품종이다.

튤립 '비탄'은 진한 적색을 띄며 매우 강렬하고 고급스러운 화색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군식을 해도 좋고 혼합식재시 유용하게 쓰이는 우수한 품종이다.

5월중순부터 꽃이 피어 가을까지 개화하는 장점이 있고

튤립 '레몬'과 '하이트랜드'는 연한 노랑과 순백색을 띄어 밝은 계절의 색을 가진 식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튤립은 꽃이 그리 많지않은 5월중순부터 꽃이 피어 가을까지 개화하는 장점이 있고 품종이 다양하여 이들 품종들만 가지고도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식물이다. 생육은 매우 강건하고 건조에 강하지만 습에 조금 약한 면이 있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화기를 길게 가가위해 꽃이 잘 때를 커팅을 해주면 연속적으로 꽃대가 올라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하얀 도화지에 스프레이를 뿌린듯한 느낌을 주어 편안하고 은은한 아름다움을 주는 튤립이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기대한다.



새로운 관목의 형태, 웅벽·암석사이 식물로도 좋은

물싸리



우리카펫

물싸리(*Potentilla fruticosa*)는 원래 중부아시아의 북부 지방에서 자라는 관목이다. 물싸리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가식물인지 착각하게 되는데 원래는 약간 건조한 사전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따라서 북부 고산의 바위주변이나 냇가변이 좋은 계곡주변의 건조한 모래땅에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싸리 '우리카펫'은 왜성으로 꽃이 다화성이고 장기개화되며

최근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심겨지는데 관목으로 군식하기도 하고 다양한 혼합식재에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사지(사슴) 등으로 표현되는 띠가죽에 자주 쓰여진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싸리 식물로 추천을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로 뿌리가 강하고 길게 뻗는 성질은 물론 잔 뿌리의 발생도 좋아 작은 공간 혹은 길게 뿌리가 들어가야 권이 형성되는 암석사이 식물(배지식물)이라고 주로 표현함) 아주 좋은 식물이다.

우리의 야생 물싸리는 둥근형의 직립형대로 주로 1.5m까지 자라는 특성이 있어 큰 바위로 석축을 쌓아 올린 곳은 종으로 4~6목 정도는 비위식축에는 좋 큰 느낌의 식물이다. '우리카펫'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싸리 종류는 왜성으로 약간 누워서 자라며 꽃이 3개월 정도 경간이 짧고 조밀한 노랑색의 물싸리로 '우리카펫'이 있다. 이 품종은 일반종에 비해 왜성으로 꽃이 다화성이며 3개월 꽃을 피우며 매우 훌륭한데 최근에 들어 암석사이식물로도 인기가 높다. 또 이와 유사하지만

꽃색이 약간의 연분홍꽃을 피우는 품종 *Potentilla fruticosa* 'Princess'는 꽃이 흰색에 가까운 분홍을 띄고 중간정도의 포복성을 이루는데 꽃은 5월에서 7월에 핀다. 그리고 약간의 파스텔톤의 옐로우색(*Potentilla fruticosa* 'Sunset')과 흰색(*Potentilla fruticosa* 'Farner's White', 광주주보다 좀더 진한 분홍색의 *Potentilla fruticosa* 'Daydawn')이라는 품종을 보우 판매하고 있다.

물싸리의 *Potentilla* 속 식물의 우리나라 대표종은 양지꽃이다. 이들은 모두 다년생 초본이며 종양지, 풀말기, 눈알지, 재주양지, 딱지꽃 등 최소 17종이상이 생육하고 있는 매우 큰 속이며 대부분 양지,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란다. 이들은 생육

이 강건하고 포기법음이 좋아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종류이다. 사실 양지꽃이나 재주양지 같은 경우 이만큼 피어 나고 포기법음이 좋아 옥상정원 잘 하려면 행잉식물로도 한 몫이 많다 하겠다. 이들의 특성에서도 내한성 초원지에서 되도록 햇빛을 잘 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잘 자란다.

석축의 암석사이식물로 효과적이고 암석가든이나 옥상정원에도 매우 잘 맞는

물싸리종류를 다양화하여 석축의 암석사이식물로 잘 적용하면 효과적이고 단순한 조경식재에 있어서는 어디에서든 종이나 생육이 암석가든이나 옥상정원에도 매우 잘 맞는 소재로 손색이 없다.

되하는 너무 풍부하면 웃자라고 또 조밀한 튤립들은 잎, 줄기가 장마철에 녹아 내리기도 한다.



가을을 대표하는 최고의 소재

아스타 시리즈



진분홍색, 보라색 등 다양한 화색을 갖고 있고 꽃대가 많아 만개할 땐 꽃만 보면 일 정도로 다화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스타 꽃을 보면 확 한 느낌과 가을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화단용뿐만 아니라 절화용으로도 훌륭한 소재이기도 하다.

키의 차이에 따라 왜성종과 고성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왜성종의 경우는 보통 키가 50cm미만인 품종들로 꽃의 형태, 화색 등이 다양하고 많은 품종들이 있다. 공원, 정원 등에 군식을 하거나 혼합식재시 가을꽃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은 9~10월에 꽃을 피우는 아스타 '춘추'를 비롯한 일부 품종은 초여름과 가을에 2회 개화를 한다. 고성종의 경우 키가 80cm이상의 품종으로 왜성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품종이 있다. 키가 크기 때문에 혼합식재시 화단의 뒤쪽에 사용하면 좋고 도로변 등에 군식또는 연속을 하면 가을철에 시각적으로 좋은 경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조장이 다양한 고성종과 왜성종이 있어 아스타만으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식물의 적용

아스타는 다양한 화색을 갖고 있고 다화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범위가 넓은 소재이다. 또한 꽃의 형태도 홑꽃과 겹꽃으로 나눌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더 넓다. 식물원의 테마원을 조성할 때 반드시 권장할 만한 소재이다. '우리꽃'에서는 10여종의 다양한 아스타 품종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식재하면 가을에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생육이 강건하여 어느 곳이나 잘 자라 관리가 용이하며 번식이 잘 된다.



이슬을 머금은 아름다움

알키밀라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날씨, 기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날씨가 맑은 날에 보면 아름다운 것이 있고 반대로 흐린 날에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있으니 말이다.

다. 계절적으로도 이른 봄 색색이 나올 때나 가을에 단풍이 들때 그리고 봄이나 가을에 안개나 아침에 상한 식물들을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신선한 느낌을 받는다. 그 중에서 봄이나 가을철에 이슬이 맺히는 이른 아침은 누구나 좋아한다. 촉촉해진 화단을 보면 마음까지 차분해지며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이전연구소의 전시



포를 걷다보면 잎끝에 동그랗게 이슬이 맺힌 식물들을 볼 수 있다. 그 식물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촉촉해지고 상쾌해지며 차분해진다. 이런 느낌을 주는 식물이 바로 알키밀라(*Alchemilla mollis*)이다.

스프레이형의 노랑꽃과 원형의 잎을 가진 포기모양이 좋은..

알키밀라는 보통 허브에서 레이디스 맨들이라고 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허브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레이디스 맨들, 맨들(맨들)이라는 의미로 내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여성들을 위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알키밀라는 꽃이 5~6월에 피며 연한 노랑색을 띄는데

번식은 주로 심목이나 분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스타는 소박하고 친숙하며 고급스러운 화려함을 동시에

식물원의 테마원 조성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적용범위가 넓은 소재

에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가을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피식물이다.



스프레이형의 이색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 마치 안개와 흡사하여 절화용으로 매우 좋다. 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채화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준다. 키는 20~30cm정도 자라며 원형의 잎이 조밀하고 포기 모양도 좋아 화단에 단독으로 식재를 하거나 화단의 앞쪽에 연속을 하거나 라인식물로도 더할나위없이 좋다. 또한 화단에 잘 어울리므로 수년에 포인드로 식재해주면 매우 좋다.

화단의 앞쪽에 열식, 라인식물로 좋고 수변에 포인트식물로...

생육 또한 강건하여 어디에나 잘 적응하는데 토양은 너무 건조하거나 척박하지 않으면 별로 문제는 없다.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으나 장마후 잎이 지저분해지고 갈변하면 잎을 따주어 새잎을 받는 것이 좋다. 알키밀라는 보통 양지에서도 잘 자

라지만 완전히 해가 들지 않는 음지를 제외하고 어느 곳이나 잘 자란다. 알키밀라는 여성들에게 좋은 식물이기도 하지 만 조경용숙근초로서 어느 장소나 무난히 적용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식물이다.

아마도 이슬 맺힌 알키밀라를 본다면 사람들은 알키밀라를 좋아할 수 밖에 없을것이다.



현장리포트

도심속에 아름다운 경관연출 일산 서구



유심히 도심속 가로화단을 바라보면 팬지, 패슈니아 등 일년생 초화류를 비롯하여 원주리, 발개미취, 매문초, 비비추 등의 아생화가 주종을 이루며 화단을 장식하고 있는것을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참마다 매년 똑같은 품목으로 갈아주는 일년생 초화류와 화기가 짧고 그리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아생화, 바로 도심조경의 한계인 것이다.

“우리꽃”이 선보인 고급소재는 주로 골판짐을 중심으로 식물원, 전원주택, 일부 아파트 현장 등에 적용되어 큰 각광을 받았지만 아직은 제한된 공간에서 일부 고객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었는데 우리도 유럽 등 조경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도심의 가로화단 등 곳곳의 녹지대에 이러한 우수한 품종을 적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며 가꿀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2007년 4월 일산서구의 여러 가로화단을 고분로 한쪽 방향의 17구간의 화단을 정비하여 꽃길을 조성하였다. 주변에는 아파트, 학교 등이 근접해있어 오가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가로변이다. 먼저 기존의 플란타리너스를 일부 아식하고 잔디를 깔아내고 식재를 시작하였다. 다양한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품종을 적용하였고 혼합식재, 군락형식재, 그라스 식재, 나무아래 음지식재 등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단종로 일부 화단, 경의로 녹지대 화단을 조성하였다. 5월말경 식재가 완료되고 식물들이 활착이 되는 약 2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가우라, 속근코소스, 개량후복스, 스텔라원주리, 꼬리꽃 등이 만개하기 시작했다. 도로를 거닐던 시민들은 처음 경험한 아름다운 꽃들에 시선을 주기에 여념이 없다. 녹지대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에 소개할 일산서구 가로화단조성은 ‘우리꽃’의 우수한 품종을 위주로 혼합식재 등 다양한 패턴의 조경연출을 통해서 도심속에서 시민들

운동기구에 몸을 의지하며 운동을 하면서도 자유롭게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보지 못했던 새로운 꽃, 그리고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킨텍스앞 약 200m정도의 화단을 재정비하여 AR가든(안식가든)을 조성하였다. 정면에서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 뒤쪽은 킨텍스내 행사에 왔던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는데 도심속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와 일산서구의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시민들의 좋은 반응속에 올해 2차로 고분로의 남은 구간에 새롭게 식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식재지는 올해 더욱더 안정된 모습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맞이할 것이고 올해 식재되어지는 화단은 다시 새단장을 하여 새롭게 시민들을 맞이할 것이다.

일산서구의 이러한 경관조성이 좋은 모델이 되어 도심속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개량후복스와 꼬리꽃이 어울려 피어있는 고분로 화단



속근코소스가 만개되어 있는 단종로 화단



킨텍스앞 조성되어진 AR가든(안식가든)



임의 세간이 좋은 대나무 클로리이드와 옥잠엘레강스가 식재되어져 있는 나무아래 화단

우리꽃으로 초대합니다.

2008년 봄꽃축제



“우리꽃”은 국내 조경을 속근지피식물의 우수품종을 줄곧 개발 보급해온 국내 최고의 아생화 및 지피식물 회사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우리꽃 봄평화, 2008년 봄꽃축제에 조경인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2008년 봄꽃축제에는 다양한 속근지피식물 뿐만 아니라 “우리꽃”에서 개발한 새로운 스프링형 입체구조물 녹화기반제 “변화수”를 고객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가 신청 바랍니다.

일시 : 2008년 6월 13일(금) 참가신청기한 : 2008년 6월 7일(토)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별도양식) FAX접수
(기타 참가신청문의는 본사로 연락바랍니다.)

TEL : 02-3412-1281-2 / FAX : 02-3412-1283



현장히트상품



상록잔디패랭이

상록잔디패랭이는 우리꽃이 개발하고 품종보호권 등록이 된 우수한 품종입니다.

“우리꽃”에서는 그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좋은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품종이 상록잔디패랭이입니다. 기존의 상록패랭이와 잔디패랭이의 장점을 모두 가진 상록잔디패랭이는 앞으로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이며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우수한 식물입니다. “우리꽃”이 만든 상록잔디패랭이는 패랭이의 새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상록잔디패랭이는 장기간 개화를 하는 최고의 소재입니다.

초분류를 삼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급적 꽃이 오래 피는 식물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상록잔디패랭이는 4월부터 개화를 시작하여 11월초 까지 연속적으로 개화를 하여 가장 오랜 기간 개화를 하는 우수한 품종입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상록을 유지하는 잎을 가지고 있어 일반 내내 최고의 관상가치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재입니다.

생육이 강건하고 건조에 강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습니다.

상록잔디패랭이는 매우 생육이 강건한 식물입니다. 건조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문제없이 잘 자라는 최고의 지피소재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를 하는 것이 좋고 긴 가문에도 관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조에 강해 관리가 매우 용이한 식물입니다. 조경관리를 하는 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품종이 상록잔디패랭이입니다.



삼색조팝, 황금조팝

삼색조팝, 황금조팝의 잎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봄 사람들이 삼색조팝과 황금조팝의 새순을 보면 한결같이 “너무 아름답다” 또는 “어떤 식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수 있을까?”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 만큼 잎의 색이 아름다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돋보이는 삼색, 황금조팝은 꽃보다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삼색조팝, 황금조팝은 기존의 관목소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목을 심을 때 화양목, 철쭉, 눈주목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장점이 많은 조경소재입니다. 그러나 흔하게 볼 수 있고 그 수가 너무 많고 단종해서 느끼고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의 관목에 노란 색의 잎을 가진 황금조팝과 붉은색의 잎을 가진 삼색조팝을 적절히 혼식을 해주면 더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삼색, 황금조팝은 일반적인 관목소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건조와 습에 모두 강한 최고의 관목소재입니다.

이디에서나 잘 자라는 식물은 많지만 건조와 습에 모두 강한 식물은 많지 않습니다. 삼색, 황금조팝은 건조한 지역뿐만 아니라 습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강건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수변지역이나 습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잘 자라고 건조가 심한 척박지에도 잘 자랍니다. 삼색, 황금조팝은 아름답고 생육이 강건한 최고의 관목소재라 할 수 있습니다.



삼색조팝



황금조팝

다양한 화형과 화색의
개량 후룩스

1. 기존 품종과는 비교도 되지않는 꽃이 화려한 고급종
2. 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화
3. 흰가루병 등 병충해에 강하다.
4. 골프장, 도로가, 공원 등 어디에 적응해도 좋다.



키가 작은 최상의 연중개화종
스텔라원추리

1. 꽃이 탐스럽고 화수가 많다.
2.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3. 어떤 현장에 적용해도 잘 어울리는 고급종 원추리



새로운 습지 대응식물
화롱물사초

1. 내한성이 강한 수종 물사초
2. 블루색잎은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3. 습지조성시 군식하면 좋다.



꽃과 열매가 이색적인 아름다움
에키나

1. 생육이 강해 어떤 환경도 좋다.
2. 꽃이 저도 열매가 아름다운 이상형
3. 절화용으로 좋은 소재



쫓불형의 아름다운 장기개화
고리풀 시리즈

1. 생육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5품종의 꼬리풀
2. 품종별로 화색, 크기, 화기 등이 서로 달라 구미에 맞게 품종선택 가능
3. 장기개화되어 화단, 도로변, 식물원등에 사용하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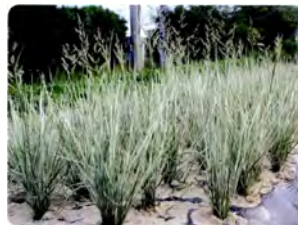
모든 조경현장의 필수소재
가우라

- 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
- 아름다운 꽃은 날고 있는 나비를 연상
- 생육이 강하고 화색이 다양하다.
- 우리의 정서에도 안맞아 도로변을 비롯하여 골프장, 공원, 식물원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앞의 무늬와 이삭이 아름다운 그라스
무늬새그라스

1. 단독식재 뿐만아니라 군식에도 좋은 무늬종
2. 6-7월경 이삭은 꽃 이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그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답고 강렬한 붉은 잎
홍 락

1. 봄과 여름에 잎 끝이 붉은 단풍처럼 물들어 있고 가을이 되면 더욱 붉어져 특이한 경관연출
2. 연중 붉은색을 강조할 수 있으며 긴장감과 함께 차별화된 조경가능
3. 돌출, 작은 언덕, 문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나 테크주변 등에 잘 어울린다.



옹벽녹화의 최고의 소재
눈썹은필레

1. 국내 땅콩레를 개량한 최상의 향토수종
2. 사람이 빨라 옹벽, 암사면, 울타리녹화에 안성맞춤
3. 절간이 젊고 마디마디 꽃대를 형성, 빨강 꽃물결



다양한 화색의 자유로운 물결
개량감국

1. 서리에도 강해 늦가을까지 화려한 꽃을 연출
2. 꽃이 크고 화색이 다양하다.
3. 장기개화형으로 초여름부터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이색적이며 이국적인 아름다움
니포피아

1. 이색적인 꽃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킨다.
2. 골프장 티하우스 주변에 적용하면 임플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연재 - 23

조경을 소재로서 식물선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빛'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화색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오래 피는지 등등... 하지만 식물의 초형, 잎의 색깔 등도 갑수종 중요한 식물선택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무늬종 소재를 비롯하여 일부본의 잎감이 좋은 잎을 가진 소재, 적색계통의 잎을 가진 소재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수변식물로 적색의 색감이 뛰어난 소재

적색의 잎을 가진 식물들은 앞으로 조경용 소재로서 많은 관심과 현장에서 유망한 품종으로 적용이 되리라 본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적엽좁쌀풀(*Lisimachia ciliata 'Purple'*)도 수변식물로 적색의 색감이 뛰어난 소재로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식물이다. 리시마키아속은 대부분 물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 수변식물로 많이 이용되어왔다. 황금리시마키아, 까치수염, 좁쌀풀, 황금무늬좁쌀풀 등이 이에 속하는데 적엽좁쌀풀도 리시마키아속으로서 일전에 황금무늬좁쌀풀을 소개할 때 좁쌀풀류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다.

적엽좁쌀풀은 잎의 색깔이 강렬한 적갈색을 띠는 식물로 기존 꽃좁쌀풀 품종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이색적인 수변식물이다. 어린 생체부터 다 자랄때까지 일찍이부터 줄기까지 온통 적갈색을 띠고 꽃은 6~7월경 노란색으로 피는데 적갈색의 강렬한 잎과 대조를 이루며 더욱 꽃이 노랗게 느껴진다. 즉 식물 전체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빨간 단풍이 든 것 같은 모습만으로도 뛰어난 관상가치가 있



는 소재이다.

수변의 포인트식물로 적용해도 좋고 아니면 색감이 좋기 때문에 군락을 지어 경관을 연출해도 좋다. 특히 밝고 무늬가 좋은 황금무늬좁쌀풀과 적갈색의 어둡고 강렬한 적엽좁쌀풀과 어울려 식재하면 색감의 대비를 이루며 좋은 경

수변의 포인트식물로 적용해도 좋고 군락을 지어도 좋은...

관을 연출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기타 다른 식물과도 좋은 색감의 대비를 이룬다. 생육은 매우 강건하여 건조기를 제외하고 수변 또는 물바람이 좋지 않은 곳에 적용해도



좋다. 그리고 일반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꼭 수변이 아니더라도 잎의 색감이 필요한 곳에 적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잎의 색상이 적색을 띠는 식물을 테마로 하여 경관을 조성할 때 매우 유용한 소재이기도 하다.

번식은 근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식은 포기나누기 또는 삽목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로 양지 또는 햇빛이 어느정도 잘 드는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무늬종들이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잎이 타는 경우가 있어 잎을 잘라줘서 새순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적엽좁쌀풀은 여름에도 강해 그럴 필요가 없고 추위에도 매우 강해 특별한 겨울철 관리는 필요하지 않다. ☺

음지를 밝혀주는 황금색 물결

“대사초 골든라이트”

잘 알려져 있고 잎에 노란무늬가 들어 있는 대사초 품종이 몇몇 있는데 대사초 '골든라이트'는 잎안쪽에 선명하게 노란무늬가 들어가 있는 품종이다. 다른 대사초 품종들에 비해서 잎이 높고 길게 나온 연대형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잎이 매우 조밀하고 포복성으로 자란다.

잎이 아름답고 피복력이 뛰어나 음지에 안성맞춤의 소재로 나무아래, 건물주변 등의 음지에 군식하면 황금색 물결을 연상시킴 정도로 잘 어울리고 또한 음지의 라인식물로도 이용하면 좋다. 다른 대사초 품종들과 반감아 식재해도 좋고 특히 황금색의 무늬는 어두운 음지를 매우 밝게 해주기 때문에 음지에 호스타 등과 잘 어울려 심으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잎 색깔의 대비를 통해서 더욱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즉 꽃이 없어도 잎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도심속 거리화단을 보면 나무아래 천관원형으로 매끈함이 대부분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곳에 단독으로 또는 매문과 호스타류와 함께 식재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견습지를 가리지 않고 저라 경사지나 소나무 아래에도 식재가 가능하다. 단, 너무 햇빛

에 노출되는 곳에 식재하면 노란무늬가 제대로 들지 않고 생육도 저조해지므로 반드시 어느정도 햇빛이 차단되는 그늘쪽에 식재해야 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번식은 봄에 포기기를 분주하거나 삽목하면 되는데 흰줄무

거리화단 나무아래 맥문동, 호스타류와 함께 식재해주면 좋은 효과를...

늪대사초와 같이 다른 대사초 품종에 비해 번식이 용이하고 관리면에서도 생육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며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므로 퇴비를 많이 해주면 더욱더 노란무늬가 선명해지며 잘 자란다.

대사초 '골든라이트'는 음지를 아름다운 황금색으로 수놓을 수 있는 활용기치가 높은 소원의 그래스 소재이다. ☺



대사초는 일반적으로 숲의 나무아래 군식하며 자란다. 키가 작고 포복형으로 자라면서 나무아래를 조밀하게 채운다. 대사초는 형태나 생체적으로는 비슷하고 잎에 무늬가 들어

잎이 아름답고 피복력이 뛰어난 음지에 안성맞춤의 소재

있는 품종들이 다 소 존재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대사초 '골든라이트'(*Carex okamotoi 'Golden Light'*)이다. 잎 가장자리에 흰줄이 있는 흰줄무늬대사초는 우리에게



무늬종 시리즈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연재 - 24

윤기있는 고운 무늬를 가진

“무늬창포”



창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단초남마련을 가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창포테두리다. 그 만큼 창포는 옛날부터 우리에게 가깝고 친숙한 식물이다. 창포는 우리나라의 토종화초로 예전부터 양이 좋고 소독작용을 하

주어 한층 고급스러운 수변경관을 연출한다. 또한 어느 수생식물과 마찬가지로 정화능력이 뛰어난 식물이라서 오염



는 방화성식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도 창포와 꽃창포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창포를 설명하는데 꽃창포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흔

히 볼 수 있다. 꽃창포가 붓꽃과의 식물로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반면에 창포는 천남성과의 식물로 꽃이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을 피운다.

원래 창포는 주로 낮은 물속에서 혹은 물가에 생육한다. 줄기는 땅의 표면을 기듯이 자라고 번식이 굉장히 빠른 식물이다. 그래서 수변이나 5~10cm 정도 되는 낮은 수심에서는 테두리 내외없이 좋은 식물이고 연못 주변, 수로, 습지가 많은 정원 등에 적용하면 좋은 식물이다. 아열대 창포는 잎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식물이다. 거기에 무늬가 들어가는 무늬창포(*Acorus calamus 'Variegatus'*)는 그 가치를 배가시킨다. 고운 흰색의 무늬가 수변을 밝게 해



된 물이 유입되거나 배설되는 지역이나 원래 수위가 좋지 않은 곳에 심으면 매우 효과적이다. 잎이 곧게 뻗으며 지탱고 힘이 있으며 관력이 좋아 더욱더 좋다. 무늬가 깨끗하며 무늬종으로는 드물게 생장이나 번식이 매우 빠른 장점이 있다고 한다.

무늬종으로는 드물게 생장이나 번식이 매우 빠른 장점

무늬창포는 생육이 매우 강하여 잘 자라지만 장마철에 침수가 되거나 배를 유속으로 인해서 잎의 상처가 나고 토사들이 퇴적되면 잎을 자르고 혹은 새로 받거나 토사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이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과 친숙한 식물들이 많이 이용되고 생활에 보탬을 주는 식물이 창포이다. 무늬창포는 창포가 가진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무늬가 더해져 쓰임새 뿐만아니라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연출하는데 또 자람이 없는 무늬종 수변조경용식물이다. ☺

Q 5.6월에 꽃을 심어 여름에 볼 수 있는 꽃은 무엇이 있나요?

A 조경을 숙근초들은 대부분 3~4치크기의 포트묘로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포트묘를 심어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2개월 정도 활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꽃'에서는 항상 일찍 심는 것이 좋다고 알려 왔습니다. 사실 옥잠화, 스텔라워너, 그라스루 등 포기형 테두리 크는 식물들은 3~4치크기의 포트묘가 아닌 5~7치화분이나 노지의 포기들을 심으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 몇 년 전부터 우리꽃을 통해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기개화형의 경우는 3~4치포트묘를 심고 나서 약 1~2달만에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가우라, 개량후박스, 숙근코스모스 등과 같은 장기개화형 식물들은 5~6월에 심어도 여름에 개화를 할 수 있는 식물들로서 숙근종을 이용하여 여름에 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러한 소재들을 식재에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장기개화형의 경우는 3~4치포트묘를 심고 나서 약 1~2달만에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가우라, 개량후박스, 숙근코스모스 등과 같은 장기개화형 식물들은 5~6월에 심어도 여름에 개화를 할 수 있는 식물들로서 숙근종을 이용하여 여름에 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러한 소재들을 식재에 주어야만 합니다.

원래 파종을 할 때에는 종자크기의 2배 높이로 흙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면혼합층에 들어가 있는 종자들은 대부분 햇빛을 받아야 발아하는 광발아성 종자들이며 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은 면적에 기계를 이용해 피드스프레이를 할 경우에는 특별히 흙을 덮을 필요는 없고 작은 면적에 손파종을 할 경우에는 종자를 뿌린뒤 레기로 살짝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여러종자가 혼합되어 있어 손파종을 하게 되면 아무런 잘 뿌리다고 해도 골고루 뿌려지지 않고 물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자 파종후 관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건조가 심한 시기나 토양의 건조가 심한 곳은 관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자를 발아시킬 때의 관수는 되도록 종자들이 한층으로 물리지 않도록 분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독자 Q&A

Q 우리법면4호를 구입했는데 파종할 때 흙 속에 얼마만큼 물어야 하나요? 그리고 관수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A 원래 파종을 할 때에는 종자크기의 2배 높이로 흙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면혼합층에 들어가 있는 종자들은 대부분 햇빛을 받아야 발아하는 광발아성 종자들이며 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은 면적에 기계를 이용해 피드스프레이를 할 경우에는 특별히 흙을 덮을 필요는 없고 작은 면적에 손파종을 할 경우에는 종자를 뿌린뒤 레기로 살짝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여러종자가 혼합되어 있어 손파종을 하게 되면 아무런 잘 뿌리다고 해도 골고루 뿌려지지 않고 물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자 파종후 관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건조가 심한 시기나 토양의 건조가 심한 곳은 관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자를 발아시킬 때의 관수는 되도록 종자들이 한층으로 물리지 않도록 분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Q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으로 기를 수 있는 야생화가 무엇이 있나요?

A 야생화는 말 그대로 야생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생화를 잘 키우려면 실외에 있는 화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거문화가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야생화를 기를 수 있는 조원은 아닙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실외보다 기온이 높기 때문에 식물들이 생육이 많이 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관엽이나 난을 키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발코니의 경우 해가 들고 환기가 잘 되는 곳이 있다면 야생화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분갈이와 분주를 잘 해주면 집에서 아름다운 야생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Q 일반 원추리와 스텔라워너리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원추리는 백합과의 식물로 양지, 반음지에 잘 자라는데 겉, 속에도 강해 어디서나 잘 자랄 정도로 생육이 강건한 식물입니다. 식재후 관리는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용이하지만 장마전후로 진딧물이 생김때 방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어 원추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경용 숙근지피식물중에 하나입니다.

스텔라워너리는 키가 작고 꽃은 5~10월까지 지속적으로 노랑색으로 개화를 하고 잔녹색의 품종 조밀한 잎을 가지고 있어 지피재와 식물들이 매우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원추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장기개화하는 꽃과 아름다운 잎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조경을 숙근지피식물입니다. ☺

5, 6월은 아름다운 미나리가 유혹하듯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는 시기이다. 곧 식물원에 발걸이 찾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번 연재에서는 외국식물원의 미나리보기로 국내식물원의 재발견을 돕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외국식물원편-①

뷰차드 가든(The Butchart Gardens)



캐나다의 빅토리아 관광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뷰차드 가든이다. 빅토리아로부터 약 20km 떨어진 토트만에 위치한 초기의 정원은 1904년에 제니 뷰차드가 남편의 시멘트 사업으로 채굴되었던 옛 석회암 채석장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시작되었다. 몇 송이의 스위트피와 장미로 시작된 썬큰(Sunken) 가든은 방문객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곳이다.

총 면적이 약 2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뷰차드 가든은 연중 무휴로 개방하고 있고 5월 중순에서 9월 사이에는 화려한 봄꽃놀이만큼 비눗방울 뮤지컬, 인형극 등 흥미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2004년 캐나다 국가 역사 유적지로 지정된 뷰차드

드 가든은 크게 썬큰 가든, 장미 정원, 일본 정원, 이탈리아 정원 그리고 지중해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각각의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진 잔디밭과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다. 50명이 넘는 정원사들이 매일 정원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매년 백만 그루가 넘는 꽃식물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연속적으로 꽃을 피우도록 환안에 심어져 있다.

봄에는 25만 그루가 넘는 화려한 노란 수선화와 튜립이 만발해 있다. 건달레라와 나무를 비롯한 꽃나무들이 장려한 모습을 드러내는 때이기도 하다. 여름에 가장 방문객의 관심을 끄는



는 곳은 역시 250여가지의 다양한 색깔, 모양, 향기를 가진 장미로 가득한 장미 정원이다. 일년생 초화류로 이어지는 다른 정원들도 눈이 부실 정도이다. 여름에는 또한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콘서트와 토요일 밤의 불꽃놀이가 방문객을 즐겁게 한다. 연장된 개장 시간으로 늦은 밤에는 은은한 색동으로 장식된 정원을 산책하며 낮 풍경과 또 다른 모습을 즐길 수도 있다. 뷰차드 가든의 가을은 베고니아와 다리아, 그리고 화려한 숙근다년생 꽃들의 계절이다. 가을은 수천개의 색깔 가지 전구와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민 정원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야외 아이스링크를 개장해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 모두에게 즐거움을 준다. 크리스마스를 열 두 날로 나누어 놀랍고 아름답게 묘사한 '십이왕의 크리스마스'라는 노래 가사에 맞추어 꾸며놓은 장식에 더하여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캐럴과 음악이 어울려 방문객을 더욱 즐겁게 한다. ☺



개장시간

	일 자	시 간
2008년	5월 1일 ~ 5월 31일	9:00am ~ 6:00pm
	6월 1일 ~ 6월 14일	9:00am ~ 7:00pm
	6월 15일 ~ 6월 31일	9:00am ~ 10:00pm
	9월 1일 ~ 9월 15일	9:00am ~ 9:00pm
	9월 16일 ~ 9월 30일	9:00am ~ 5:30pm
	10월 1일 ~ 10월 14일	9:00am ~ 4:30pm
	10월 15일 ~ 10월 31일	9:00am ~ 4:00pm
	11월 1일 ~ 11월 30일	9:00am ~ 3:30pm
	12월 1일 ~ 12월 6일	9:00am ~ 9:00pm
	크리스마스	1:00pm ~ 9:00pm
2009년	1월 7일 ~ 2월 29일	9:00am ~ 3:30pm
	3월 1일 ~ 3월 31일	9:00am ~ 4:00pm
	4월 1일 ~ 4월 30일	9:00am ~ 5:00pm

큐 가든(Kew Garden, Royal Botanic Gardens)



런던 이스트엔드에 위치한 왕립식물원은 총면적이 12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원으로 그곳에 사식하는 식물군만 해도 모두 5만여 가지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큐 가든의 역사는 1959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 국왕인 조지 3세의 어머니 프란시스 오거스타가 정원사인 W. 아이튼에게 명하여 이곳에 정원을 조성한 것이 그 시초다. 이후 유명한 모험가 캡틴 쿡이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수집한 여러 종류의 식물로 구성된 반쿠스 컬렉션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큐 가든은 18세기 후반 영국의 자연주의자이자 식물 채집가인 조셉 बैं스 경에 의해 처음으로 명칭을 얻게 되었고 1841년 왕립 정원이 국가에 헌납되면서 대형 식물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2003년 7월 3일 유네스코는 왕립 식물원 큐 가든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



위치 : Royal Botanic Gardens, Kew, Kew, Richmond, London, England, TW9 3AB, 020 8 940 1171

개장시간 : 연중 9:30am~4:00pm(겨울), 5:30pm(여름), 1월1일, 12월25일 폐관

입장료 : 성인 £6.50, 노인/학생 £4.50, 16세이하 무료

종자프로젝트

연재 - 12

가을을 새롭게 수놓을 소재 꽃담배, 풍점초



꽃담배

올바라지 필경초 개화기가 길다. 키는 40cm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여 약 70~80cm까지 자라며 꽃의 크기는 직경 3~4cm 정도로 크고 다양한 꽃색으로 줄기 끝에 계속하여 꽃이 피어나다. 토양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생육은 강건하다.

봄꽃이 지고난후 경운한 뒤 6월에서 7월사이 파종하면 약 70~80일 후면 개화를 시작

풍점초는 꽃이 황색과 흰색 등을 띄며 늘모양의 피침이 있는 이색적인 형태의 꽃이다. 키는 80~100cm정도 자라며 꽃줄기가 매우 크고 8월부터 아름다운 지태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가을을 수놓는다.

꽃담배, 풍점초는 봄꽃이 지고난후 경운한 뒤 6월에서 7월사이 곧바로 파종하면 약 70~80일 후면 개화를 시작해 늦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월중 모두 생육이 강건하나 토양양기질이 풍부할 때 좋은 색상의 꽃을 풍성하게 피우므로 경운할 때 충분히 퇴비를 섞어 주어야 한다.

지역의 가을축제 및 행사 등에 이용할 때 면적이 넓은 경우 코스모스를 비롯하여 꽃담배와 풍점초를 구간에 나누어 파종하면 좋은 가을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는 한창이었던 유채꽃은 수그러들고 곧이어 꽃왕귀비 파종지에서 뽕까색 양귀비꽃이 한두송이 피어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이

꽃담배, 풍점초는 코스모스를 대체할 가을을 새롭게 수놓을 소재

렇게 유채 및 양귀비 등 봄부터 초여름까지 아름다운 꽃을 연출했던 파종지에 그 다음 가을경관을 연출해줄 소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봄꽃을 보고난뒤 갈아엎고 가을꽃으로 코스

모스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보니 일년생 종자를 이용하여 가을거리로 조성해 놓은 곳은 코스모스 일색인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코스모스가 좋은 소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소재가 빈곤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기도 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꽃담배, 풍점초는 이러한 감정을 해소해 줄 좋은 일년생 종자소재일 것이다.

꽃담배는 다양한 색상이 혼합되어 6월에서부터 서리가



야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연재 - 4

우리에게 친숙하고 쓰임새가 많은

“도라지”



도라지는 쌍떡잎식물로서 초봄꽃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꽃은 7~8월에 보라색과 흰색으로 섞여서 핀다. 관상을 조절소재로 이용되어지기도 한다. 한여름의 도라지꽃은 보라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며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도라지는 뿌리의 독특한 향으로 다덕과 같이 반찬용으로 많이 쓰여 왔으나 한의원과 약재상에서는 '갈경'이라하여 약재로 쓰이기도 한다. 도라지는 밭에서 재배한 것이 먹기 좋으나 자연산 산도라지의 효능과 비교했을때 1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산도라지는 기관지가 약하여 감기가 자주 걸리는 분들의 감기예방과 현재 걸린 감기는 물론 감기와 담배로 인한 가래를 삭혀준다. 목을 많이 쓰는 가수나 교사, 강사 등과 자주 가슴이 답답하고 목안이 아프고 목이 쉬는 등의 증상을 완화 또는 치유하여 목을 상쾌하게 해주기도 한다. 호흡기 질환과 폐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에 좋은 약재로 알려져 왔으며 지장강장제의 작용으로 인해 감토되었던 정력을 되살려 준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일반인들도 산도라지의 효능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

도라지는 약재로서 팥으로 끓여 먹는 방법, 한으로 만들어 먹는법 이외에 반찬용으로 도라지

구이와 도라지 무침으로도 좋다. 뿐만아니라 열 급에서 도라지는 뿌리, 잎, 꽃기름 나물로 일반 내내 먹는다고 했다. 봄에 부드럽게 올라온 잎과 줄기는 미식가의 구미를 돋운다. ☺

약재로서 도라지의 이용법

1. 팥으로 끓여 먹는 방법
탕으로 끓일 때 물을 사용없이 하고 배추만으로 달이면 산도라지 3kg, 배 30kg, 생오미자 12kg, 은행씨 1kg, 생강 15kg, 대추한되, 건조맥문동 300g, 건조100g을 같이 달여 하루 2번 또는 3번 대위 복용한다.

2. 한으로 만들어 먹는법
건조시킨 산도라지800g과 오미자 400g, 생강500g, 맥문동(약초) 300g, 황아사 100g을 분말을 분말을 만들어 티스푼으로 한술씩 먹거나 원으로 지어 하루 2번 또는 3번 20~30ml씩 복용한다.

농업적 경관, 체험, 휴식이 있는 곳

양귀비 식물원 포천 부식물원

"이 코너는 경관식물원을 표방하는 포천부식물원의 월별 주요 경관과 식물원 내의 이벤트 및 진행 프로그램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붉은 유혹의 물결, 포천부식물원 제4회 양귀비 대축제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기간: 5월 16일(금)~6월 29일(일)



지금 포천부식물원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양귀비 대축제 준비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부식물원의 양귀비축제는 이미 알려져서 포천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해마다 4,000평의 대지에 펼쳐지는 양귀비들만 이외에도 올해는 1,000평의 새로운 양귀비와 수레국화 들과 음초부터 새콤한 준비한 또다른 1,000평의 야채, 그라스 정원위에 펼쳐지는 개양귀비 꽃의 축제도 만날 수 있게 된다. 작년에 참여하는 숙근 양귀비 또한 시크릿가드에서 볼 수 있다.

이토록 다양한 양귀비 꽃의 유혹을 어디서 만끽할 수 있으려나~

올해 양귀비축제에는 교육에도 초점을 맞추어 매 주말에는 각 분야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전문 강좌가 열린다.

일시	시간	주제	전문강사	약력
5월 31일(토)	pm 2~3시	인간 양귀비의 생애이기 나레온	한중문화연구소장	
6월 8일(일)	am 10~12시 pm 2~4시	야생화 사진촬영 기법	양형호	야생화 사진가
6월 14일(토)	pm 2~3시	허브와 향기요법	윤정식	생물의 향기 대표
6월 21일(토)	pm 2~3시	한글한 살그려 숲	김영배	정령대 교수
6월 28일(토)	pm 2~3시	식물의 사용법	박금영	우라늄 대표이사

어느것 하나라도 놓치면 아쉬운 감이 가 될 것이다.

또한 축제 기간내내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진다.

매주말에는 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해 풍물패를 초청해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부식물원을 열광의 도나리로 달아오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에는 양귀비 척교 마일을 하게 되는데 많은 고객들이 양귀비와 함께 사진도 찍고 재미있는 추억을 간직하리라 생각된다.

양귀비 축제 기간동안 사진을 찍어 즐기며 당선되면 푸짐한 상품도 받을 수 있다.

양귀비 축제 기간동안에는 양귀비 떡, 양귀비 샐러드, 양귀비 쿠키, 양귀비 비빔밥, 양귀비 국수, 양귀비 돈가스 등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며 장터시당에서는 포천의 명물 일동 막걸리와 함께 양귀비 부추전과 양귀비

도토리묵을 곁들여 먹을 수 있다.

양귀비 비누만들기, 향초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 양귀비 향수 만들기, 양귀비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 또한 경험할 수 있다.

양귀비 축제 기간동안 주말에는 포천시와 함께하는 우수농산물 장터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포천의 우수한 농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진다.

부식물원 입구에 들어서면 주차장입구에

배화수로 장식한 조그마한 집과 부식물원 건물이 보인다. 매표를 하고 부가전 입구에 들어서면, 새로이 단장한 부가전에서 우리꽃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다양한 야생화(양귀비 포함)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오면 부대 점과 부가전에서 여러 가지 정원제품과 분경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라디오를 따라 백조의 호수를 지나면 4,000평의 양귀비 들만이 나타난다. 황홀한 양귀비만의 유혹에 넋을 잃고 가다 보면 꽃향기 숨지않아 나타나는 데 정경다 리를 건너면서 꽃향기와 꽃향기의 재배를 여유있게 감상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테마로 잘 어우러진 시크릿 가든이 나타나면 매리츠에서 전통차 한잔과 구양공예(바느질 체험)를 체험하고 향기 정원에서 허브의 향기에 취해 건너가 보면 어느덧 정원에서 시크릿 가든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연인 오솔길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들어서 손을 꼬~옥 잡고 가자한다. 연인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무지개동굴과 7년 캐스케이드를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레드포에서 다다르게 된다. 레드포에서 아이스크림과 슬라쉬, 와플, 양귀비와 생채 주 한잔을 하며 양귀비 들만을 마음껏 감상한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양귀비와 일대(ARD) 가든의 돌과 식물의 조화를 감상하고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백강 지붕의 양귀비 비하우스가 나타난다. 양귀비비하우스에서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소품과 향초, 향기 제품 등 다양한 선물을 구경할



수 있다. 이때쯤되면 맛있는 음식 냄새가 우리의 허기진 배를 유혹한다. 백화수 식당에서는 여름 별미인 물회와 양귀비 비빔밥, 국밥, 돈가스, 묵은지 등갈비찌, 낙지볶음, 양귀비 샐러드 등 식사위주로 판매를 하고 장터시당에서는 양귀비 국수, 양귀비 냉면, 부추전, 도토리묵, 막걸리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단체로 오게되면 잔디 광장에서 휴식도 취하고 놀이도 할 수 있으며, 연인들은 작년에 낳은 첫길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사랑 또한 깊어지리라.

포천 부식물원은 국내최초의 농업적 경관식물원으로 휴식과 낭만과 사랑이 가득하며, 이제 당신을 붉은 물결 양귀비의 세계로 유혹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양귀비의 매력에 푸~욱 빠져 보지 않겠는가!

- 1 포천부식물원 가족들
- 2 붉은색 양귀비가 드디어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하여 6월이면 만개를 할 것이다.
- 3 노랑꽃망울을 비롯한 다양한 수종수변식물들을 볼 수 있는 습지원 정경
- 4 부가전에서는 꽃양귀비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화를 구입할 수 있다.
- 5 양귀비 광장 한편으로 돌발꽃이 만개한 모습
- 6 부가전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원을 제품과 분경을 보고 구입할 수 있다.

포천 부식물원
The View Botanic Garden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 441
안 내 : 031) 534-1136
서울사무소 : 02) 3412-1281~2